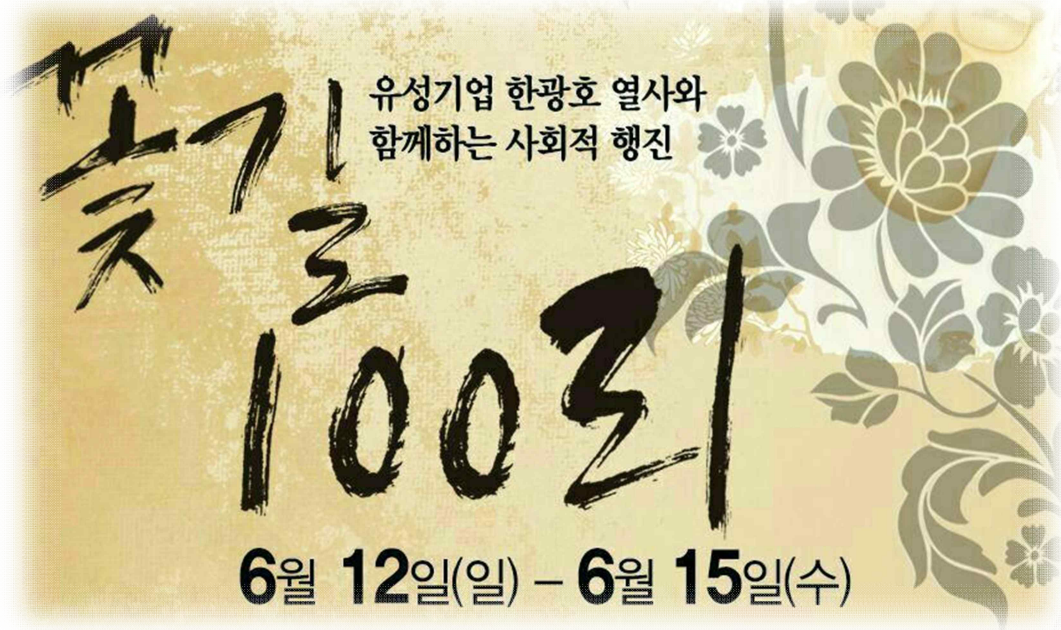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6월 1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한광호 열사와 함께 걷는 꽃길 100리!

열사투쟁 100일이 되어간다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벌써 89일째다. 아직도 열사는 차가운 냉동고 안에 갇혀있다. 열사의 한을 풀 때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는 살아남은 동지들의 마음도 더 타들어간다. 유성기업 영동공장, 서울시청,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 곳곳에 열사의 분향소를 차리고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거대한 자본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잔혹한 자본을 넘는 꽃길 100리

열사투쟁의 힘을 다시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 서울시청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차 본사로 옮긴다.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분향소였다. 서울시청 분향소를 중심으로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었다. 이제는 열사 죽음의 원흉인 현대차 본사 앞으로 간다. 꽃상여 100리길이다. 열사가 돌아가시고 유성지회 동지들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투쟁했다. 온갖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현대차 본

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기도 했다. 용역깡패와 경찰들에게 짓밟혀도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89일을 싸웠다. 이제 100일이 되기 전에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100리 길에 나선다. 열사의 상여가 지나갈 100리 길은 열사의 넋을 달래고 다시 힘을 모으는 길이 될 것이다.

현대차, 유성기업의 침묵을 깨자

여전히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열사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인양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본에게 노조파괴의 책임을 묻고 있다. 사회적 여론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현대차 본사 앞을 노조파괴 책임을 묻는 목소리로 채우고 있다.

자본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 필요하다. 열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 투쟁이 필요하다. 89일동안 한 발, 한 발 현대차 본사 앞까지 왔다. 이제 100일이 되기 전에 열사의 한을 풀자.

7월22일 서울을 금속 푸른 깃발로 두덮자

금속노조가 재벌개혁과 2016년 투쟁 승리를 위해 임원 현장순회에 나섰다. 노조는 6월 3일 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조합원을 만난다. 대전충북지부에는 6월 13일 이래오토모티브지회와 JCC지회를 방문한다.

노조의 올해 투쟁은 재벌개혁이 핵심 과제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윤을 독식하고 경제위기가 오면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국민 혈세까지 빨아먹으며 성장해온 재벌에 대해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광호 열사 투쟁에서 보듯이 하청사 노조파괴에까지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노조는 7월 22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투쟁이다. 삼성, 현대기아차 등 재벌을 향한 노동자들의 매서운 투쟁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 이번주 일정 *

■ 한광호 열사 꽃길 100리

6/12(일) ~ 15(수)

서울시청 → 국회 → 한남동 정몽구 회장 집 → 양재동 현대차 본사

■ 재벌개혁! 한광호열사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

6/15(수) 14:00

서울 삼성 본사 → 현대차 본사